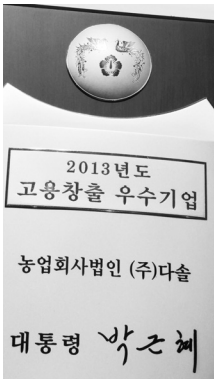


## 다솔, '2013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



오리 전문 기업 (주)코리아더커드의 관계사인 (주)다솔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13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올해 4회째 진행되는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은 기업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해 각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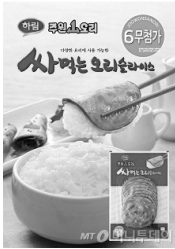
기업을 선정 및 시상하는 제도다.

다솔은 국내 오리고기 시장 점유율 1위인 코리아더커드의 대표 브랜드 다향오리 등과 함께 신선하고 깨끗한 오리고기를 생산해 건강한 식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고용현황 사전조사 및 고용노동부 자체 조사에 따르면 다솔은 2012년 임직원 수 53명 대비 2013년에는 189명으로 인력을 360% 가량 증대시키며 고용창출을 실현했다. 이는 국내의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지난해 650억 원의 투자를 통한 국내 최대 생산능력(Capa) 도축장 설립, 무균 설비 등 최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결과다. 다솔은 근로지수 및 공정별 따른 차등 급여 지급, 성별, 경력 차별 없이 능력위주의 성과 보상 등을 통해 차별 없는 고용 정책의 원칙을 지켜오고 있다. 특히 60%에 달하는 여성 고용률 유지 및 취약계층 고용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업계 리딩 브랜드로서의 사회적 책임에도 모범을 보이고 있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다솔은 정기 법인세조사 선정 제외,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중소기업 신용평가 및 정책자금 금리·융자한도 우대, 출입국 편의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박채연 다솔 대표이사는 “온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다솔 임직원들의 노고 덕분에 이번 시상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신선한 오리고기를 통해 건강한 식문화를 선도하고 건강한 고용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2014. 04. 18]

## 주원산오리, 전자레인지 60초 ‘싸먹는 오리 슬라이스’ 출시



하림그룹의 계열사 (주)주원산오리(대표 이우진)가 전자레인지 60초면 완성되는 ‘싸먹는 오리 슬라이스’를 출시했다고 6월 26일 밝혔다. 싸먹는 오리 슬라이스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오리고기 제품이다. 합성아질산나트륨, 합성착향료, 합성착색료, L-글루타민산나트륨, 소르빈산칼륨, 전분 등이 첨가되지 않았다. 전자레인지로 60초만 돌리면 되기 때문에 어린이 및 노인들도 쉽게 조리할 수 있다. 싸먹는 오리 슬라이스는 ‘밥과 함께 싸먹는 오리’란 뜻으로, 한 끼 식사와 같이 섭취할 수 있는 중량으로 구성됐다. 업체에 따르면 아이 간식 및 간편 식사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평이 쏟아지면서 주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입소문의 원동력은 다양한 레시피 동영상에서 나온다. 주원산오리는 조리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로 공유하고 있다. 주원산오리 관계자는 “특히 출원 중인 싸먹는 오리 슬라이스는 기존 오리고기 이미지를 탈피한 제품”이라며 “균일한 모양과 중량, 부드러운 육질 등이 특징인데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해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 제품은 직영몰인 오리마트([www.orimart.co.kr](http://www.orimart.co.kr))와 오픈마켓, 홈쇼핑, 백화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업체 측은 페이스북 북과 블로그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머니투데이 [2014. 06. 26]

## (주)건지, 친환경 대형닭 프랜차이즈 치킨 ‘군계일닭’ 오픈

고상식계사를 통해 우리나라 대형닭 보급에 앞장서 온 (주)건지(대표 곽준욱)가 친환경 대형닭 소비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치킨점 ‘군계일닭’을 오픈한다. 이번에 오픈하는 ‘군계일닭’ 1호점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하며 맛과 건강 면에서 최고라 자부하는 친환경 대형닭 ‘하니스(Honey’s)’를 보다 빠르게 소비자에게 알리고, 보급해 국내 친환경 대형닭의 우수성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곽준욱 (주)건지 대표는 “군계일닭은 친환경 대형닭 하니스 닭만을 사용하는 전문 프랜차이즈로 올바른 먹거리 문화창조는 물론 국내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대형닭이 우리 양계산업의 전환점이 돼 수입닭고기를 대체하고,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계일닭’은 ‘닭 무리 가운데 한 마리 학’이라는 의미의 사자성어 군계일학을 패러디해 ‘많은 닭 중에 최고의 닭’이라는 의미를 담은 명칭이다.

농수축산신문 이한태 기자 [2014. 06. 09]